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_ 마태복음 11:28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특집기획 | 6 | 베트남 귀국 인사 | 9 | 봉사자 간증 |
| 4-5 | 정신학원 소식 | 7 | 진중세례식 | 10-11 | 가브리엘의 집 |
| 6 | 새가족환영회 | 8 | 겨자씨이야기 | 12 | 교회사용설명서 |



건강하십니까?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것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관계의 아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균형있게 건강한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 섬김과 봉사, 교제가 균형있는 삼각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즈음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지 확인해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팎에서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겨자씨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에서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거나, 균형있게 자리잡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⑦

지역공동체,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카치오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선교지에 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선교지에 먼저 가 계시며 거기서 먼저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절대 혼자서 일을 다 하시지는 않으시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 선교사가 와서 할 일을 남겨 두시고 선교사가 당도하면 협력하여 일하기를 즐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며 만물을 지탱하시는 원리이다. 하나님은 한 마디로 “코퍼라치오 데이”(God who cooperates)이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Homo Cooperatio Dei)로 부름 받았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린도후서 6:1)고 권면하였다. 바울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당하는 모든 선교적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원천적으로 존재하던 것인데 서양의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과 같은 선교사가 오랜 인도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파송했던 영국에 돌아와 보니 선교사 파송국이 너무도 세속화되어 다시 선교를 받아야 할 지경에 놓인 것을 보고 한탄하며 선교의 본질을 생각하다 고안한(?) 선교론이다. 선교를 “나가던지 아니면 보내던지”(Go or Send)의 양자 간 선택으로만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잊었던 서양 기독교 국가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선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일함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인간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핵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 인간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재천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 학습자의 속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모든 인간의 교육도 하나님의 교육이고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를 에듀카치오 데이(Educatio Dei)로 부르며 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렇다고 인간 교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때로 부모가 교회학교와 일반 학교의 교사가 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나이를 초월한 친구나 선후배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사는 학생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요약한 구절이 바로 시편 78:72이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타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렇듯이 다윗은 대략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과 함께 자라났다. 다윗이 양들을 지켰을지, 양들이 다윗을 지켰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아무튼 다윗은 아직 아무런 사회적 경험이 없을 때부터 양들을 치며 목동으로서 성장했던 것이다. 70절에 보면 다윗이 아직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으며, 자기 일군을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배웠으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 71절을 보며 양을 기르면서 그 양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양들을 기르는 철학과 방법을 배웠던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양들의 하나님이며, 양들이 좋아하는 풀까지 만드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만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건강한 시민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육, 에듀카치오 데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분이다. 다윗은 자연과 양의 우리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들을 지키고 기를 때처럼, 백성들을 지키고 섬겨야 함을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자세, 즉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해야 함을 배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교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점이다.

다윗이 아직 목동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양들을 만드시고 먹이시며 기르시면서 다윗이 자라나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윗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가르치시고 지도하셨던 것이다. 양들도 아기로 태어나 성체가 될 때까지 양들의 부모가 기다리면서 지도하고 가르치듯이, 사람인 다윗도 아기로 태어나 서서히 성숙한 목동으로 자라나면서 배우다가, 급기야 준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마음의 완전함(Integrity of heart)이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지식과 감정을 가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동료 인간을 보살피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긍휼히 여기며, 필요를 채워주는 넓은 마음, 기다려주는 인내의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며,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통전성을 가진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손의 능숙함(skillful hands)이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인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능숙함의 또 다른 표현은 코노이술십(connoisseurship)으로 부르는 일종의 예술가적 전문성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그가 부모이든 학교의 교사이든 간에 자신이 맡은 분야를 깊고 넓게 연구하여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손으로 만드는 것에만 능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를 밤낮으로 손과 머리로 연구하여 그 누가 질문하더라도 예상 질문과 답변을 갖고 있으면 좋겠고, 자신이 미리 고민하고 답을 탐색하는 수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양의 우리에서 자라게 했으며 하나님의 양과 뒹굴면서 양의 습성을 알고 잘 기르는 비결을 알게 함으로써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하게 하셨다.

모든 선교의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미리 앞서 가시어 선교하시듯이, 모든 교육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미리 그 바탕과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인간 교사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

가교마 사역과 페리코레스시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다음세대를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육의 사역은 가정과 교회와 마을의 연계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른바 교육생태계를 잘 형성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혼자서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생태계의 모든 사람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림 1>에 표현된 것과 같이 한 개인은 가정-교회-마을-세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전체 생태계 속에 들어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육할 때 이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간 중심의 삶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안녕을 무시하여 전

쟁을 일으키는 무도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처절한 일이다. 작은 제목에서 가교마라고 부르는 가정-교회-마을의 연계 과정은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표현해 준다. 필자는 이를 기억하기 쉽게 가교마로 부르고 하나님의 교육에 동참하는 인간 교사의 노력은 언제나 이 생태계를 인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교마는 언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적 활동 즉, 상호내주, 상호침투, 상호연대를 떠오르게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시나 한 몸처럼 같이 일하신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와 마을은 서로 협력하고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 교회당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있으며, 교회당 내에서의 뜨겁고 은혜넘치는 예배(레이투르기아), 설교(케리그마), 가르침(디다케), 교제(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교회당 울타리 밖에서 구제와 섬김(디아코니아)과 전도/증언(마르투리아)을 생활화함으로써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 선교적 교회에 터한 선교적 기독교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내용과 존재로 보여주는 프락시스적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생활로 본을 보여주고 교회당에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교리와 교회 정치와 더불어 사는 도를 잘 가르쳐, 교회당 밖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 모두의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만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육, 에듀카치오 데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당 안에서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와 더불어 교회당 밖, 교회 울타리 밖에서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는 언어 둘 다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를 습득하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도와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가정-교회-마을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며 삶이 전도가 되고 말이 증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시각으로 수행하는 기독교교육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부족한 글을 마친다.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참고문헌 : 김도일 <가정교회마을 교육공동체>(동연, 2018), 김도일편 <전 세대와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 교육>(동연, 2022)

정신학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새 시대, '함께 걷는 기독교학교' 꿈꾼다

주님의교회는 기독교학교인 정신학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의 창립70주년을 맞아 정신학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커지길 소망하며 교단 기관기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 연합 예배 관련 기사를 전제합니다.

함글함글



12일 경신중고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창립 70주년 감사예배는 전국의 50여 개교, 1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체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전국의 기독교학교 학생, 교사와 리더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함께 걷는 걸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독교학교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이영선 회장:홍배식)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국 연합예배, 교사연구 프로젝트 발표회, 학생중창경연대회 등의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순서마다 뜨겁게 환호하며 연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기독교학교들은 지난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예배의 중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독교동아리들이 해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가운데 연합회가 70주년을 맞아 기독교학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들은 침체된 기독교학교간 연대를 다시 회복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경신중고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열린 창립 70주년 기념예배에는 전국에서 50여 개교 1만 20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해 연합예배를 드렸다. 16일엔 같은 장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기독교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중창경연대회 본선 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27개교 600여 명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석했다.

교사연구프로젝트 발표회를 참관한 경신고 김도희 교사는 "사실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독교교사로서 잘 설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았다"면서, "오늘 발표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교사들이 애쓰고 있구나 느꼈고,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수 있겠다. 우리 학교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과수업, 예배, 학급운영, 학생동아리 등 4개 분야 11개의 연구물 중에서 △송덕여고의 '기독교세계관으로 열어나가는 교과수업' △인성여고의 '시대와 조화로운 기독교학교의 예배 프로그램' 등 5개가 발표됐다. 모든 연구물은 8월 중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다.

발표회에 이어진 학생중창경연대회에는 11개교 12개 팀이 참여해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이 대상, 송실고 송실남성합창단이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합창대회에 참가한 대전대성고등학교 코람데오콰이어의 김찬혁 군은 "저희는 이번 대회를 위해 급조된 중창단이었지만, 정말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점심시간 마다 자발적으로 모여 연습했다"며, "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복되다. 저희의 믿음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전했다.

순천매산고 마하나임중창단을 지도한 장중선 교사는 "기존에 있던 합창단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이번 7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결성됐다. 지방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 모든 것들이 부족해 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정말 합창을 해보고 싶어해서 참가하게 됐다"고 밝히며, "아이들이 찬양을 연습할 때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으며, 내년에도 합창대회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두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대광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김형기 목사(경주 팔복교회), 박상진 교수(장신대), 김서영 간사(동 연합회) 등 3인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6.25한국전쟁 중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기독교교육의 재건을 위해 결성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지난 70년 간 교장연수회, 교목연수회, 교과별 교사연수회 등을 개최해오며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이수진 기자 / 한국기독교공보



16일 열린 전국학생중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의 공연 모습

정신학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기독교학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전제합니다. **함글함글**

“한국 최초의 학교이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곳에서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던 이 땅에 교회와 기독교학교로 가득차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6.25한국전쟁 중인 1952년 8월 기독교교육의 재건을 위해 부산에서 창립된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고 주저앉은 기독교학교의 교육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연합회 회장 홍배식 장로(동안교회·송덕학원 학원장)는 70주년을 맞은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홍배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학교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학교의 문화들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70주년 행사를 통해 기독교 학교들이 다시 예전의 예배와 기독교 문화를 회복하는 모멘텀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교회학교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부가 가장 약하고 청소년들을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홍 회장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학교"라고 설명하며, "기독교학교가 한국교회 부흥의 그루터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사학법 재개정으로 기독교사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강력하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우리에게는 수업 자체가 예배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연합회 성격상 독자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한국교회와 사단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돕고 있다"고 소개하며, 뜻 있는 학부모들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칠 만큼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지금은 지역교회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의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돕는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하는 홍 회장은 "한 학급과 한 교회가 연결되어 여전도회 회원들이 학생 한명 한명을 위해 기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품어준다면 믿지 않은 청소년들이 전도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소망하며, "기독교학교가 무너지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어려워진다. 기독교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학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 한국기독교공보

정신학원
정신포럼

감사의 빛으로 삶을 그리다

제7회 정신포럼 특강(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이 7월 8일(금) 오후 4시에 정신여고 대강당이며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정신여고 학생들 및 주님의교회 교우들과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열렸다.

문성경 화가는 정신여고 92회 졸업생으로 생후 12개월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장애인 화가이다. 정신여중 시절부터 주님의교회와 인연을 맺어 주님의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사렛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고 화가로 활동 중이다.

정신포럼은 정신여고 교사들이 제작한 21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문성경 화가의 인사말로 마무리를 한 후 정신여고 후배들이 문성경 화가에게 꽃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신포럼을 마쳤다.

정신포럼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과 정신여고가 함께 진행을 하며, 강사는 정신여고 동문들이 참여를 한다.



함글함글



새가족부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

가족이 됨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새가족 환영회가 6월 26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주님의교회 3층 소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에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중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위 기간 동안 142명이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등록자를 제외하고 55명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였고, 40명 가까이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장성식 전도사의 환영 노래와 이성준 장로의 기도 그리고 김화수 담임목사의 말씀과 수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최남영 집사, 정희선 집사, 유운정 집사가 해금, 첼로, 피아노 3중주로 축하 연주를 하였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새 가족들은 교구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교역자와 교구 담당 장로, 권사, 겨자씨 인도자들까지 참석하여 새가족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많이 참석해주신 새가족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새가족들도 다음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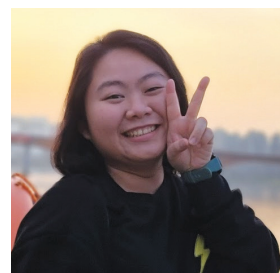
새가족부



해외선교위원회 선교지역1부
베트남

베트남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부터 외국인유학생선교부에서 한국어 선생님이로서 섬기고 있는 야린입니다. 풀네임은 쯔영 응옥 야린 인데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줄여서 야린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베트남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인 나트랑에서 왔고 모태신앙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올해 27살이고 미혼입니다. 2020년부터 주님의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에 와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 석사과정 공부를 했고 학업을 다 마치고 8월 4일에 졸업할 예정이나 개인 일정 때문에 졸업 날까지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고 8월 1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선교사역 계획 1) 원키즈 클럽 사역

장신대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돌아가서 최병관, 김경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원키즈 클럽 사역에 함께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약 자료는 다 만들었고, 신약 자료를 제작 중이라 들었는데, 신약 자료 제작과 보급을 위한 사역에 함께 하면서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심고, 자라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역 계획 2) 교회 교육 연구소 사역

원키즈 클럽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교회교육 연구소 사역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사역을 통해서 베트남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현장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 자료들을 풍성히 만들어서 보급하고, 나아가 이 일을 현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하여, 베트남 교회학교의 양적,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교사역 계획 3) 한국어 교육 사역

최근 한류의 영향에 따라 베트남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국 유학 전에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선교사님이 빈롱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한국어교육센터 사역에 함께 하여 베트남의 젊은이들과의 선교적 접촉점을 넓히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끄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도제목

1)베트남 정부가 기독교학교를 허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2)사역을 함께 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3)8월 1일 베트남 출국 잘 할 수 있도록

군경선교부
신병진중세례식

신병진중세례식이 재개되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군·경선교부의 진중세례식이 2년 반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7월9일(토) 6사단(철원)에서 군·경선교부 담당 이진희 목사와 32명 군경 선교부 부원들이 믿음의 용사로 거듭 태어나는 신병진중세례식에 참석을 하여 장병들에게 축하와 격려,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부대출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장병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진중세례식을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교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과 설렘 속에 재개된 진중세례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마음껏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보의 중요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200명)과 기세례자(100명) 총 300명의 용사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으며 이들이 힘차게 부르는 찬양과 율동과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경건한 예배로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하심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세례자는 교회가 준비한 성경책과 라이트 펜, 햄버거 및 음료 등을 선물하였으며 이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사회인으로 환원되어 하나님나라의 주역으로 다음세대에 계속 이어지길 기도하였으며 교회는 매년(6~8개)부대에 진중세례식을 지원하여 그들과 함께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향수 안수집사 / 군경선교부



군경선교부
신병진중세례식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코로나라는 오랜 침묵을 깨고 6사단 신병교육대대 진중세례식이 주님의교회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군대에서 신병교육대대(신교대) 진중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신교대는 ‘군대의 관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문이란 표현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교대를 거쳐야 한 사람의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신교대는 군대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군인교회에서는 신교대의 사역을 “관문선교”라고 부릅니다. 관문선교를 통해 군대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훈련병이란 특수한 상황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진중세례를 통해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중세례식이지만 그간 코로나로 제대로 된 신교대 진중세례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님의 교회 후원을 계기로 새롭게 6사단 신교대 진중세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례식은 다른 세례식보다 좀 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례식에는 두개 중대가 참여했습니다. 세례식 전 복음제시의 시간을 통해 총 198명의 청년들이 제시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미 세례 받은 109명의 청년들이 목사님들의 기도로 군 생활에서 큰 격려를 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 주님의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신교대 진중세례식은 군인교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민간교회의 후원과 관심이 필요한데 이번 세례식에 주님의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실 뿐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서 세례식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나 6사단 군종목사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진중세례식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6사단 신교대와 오래도록 함께 군선교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군선교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후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군종목사단에서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2030년까지의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2030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건강한 한국교회의 모델로 군인교회와 함께 군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나아가 백만 장병은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귀한 군선교의 동역자되길 기도합니다.

김성윤 목사 / 6사단 군목

겨자씨이야기
7교구 마가방 겨자씨

영적 군사들이 모인 마가방 겨자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7교구 마가방 겨자씨는 모두 여섯 가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거의 모든 구성원이 교회학교 교사, 교회 식당, 찬양대, 장학부서, 통일선교 등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에 힘쓰는 부부 겨자씨입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아껴주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겨자씨입니다.

마가방 겨자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설교 영상과 말씀을 미리 보고 읽고 묵상한 뒤에 겨자씨 모임에서는 나눔과 교제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온 간식을 먹으며 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5년 전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이름도 익숙하지 않았던 마가방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따뜻한 섬김과 나눔 덕분에 저희 가정은 새가족이 가질만한 어색함 없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마음을 나누고자 교구 목사님께 새가족 중 정착이 필요한 분들을 겨자씨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가족이 오게 되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가정 보다 조금 더 큰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겨자씨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마가방 겨자씨는 줌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이준숙 권사님은 줌 모임을 위해 미리 배워 오시는 열정을 보여주셨고, 서로 조금씩 불편했지만 영상으로 모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가정에서 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각 가정마다 정성이 가득하게 나뉘었던 간식이 많이 그리웁니다. 2022년 겨자씨 인도자를 처음 맡으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교구 목사님의 도움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랑으로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교회에 힘이 되는 겨자씨, 구성원 모두가 봉사하는 겨자씨, 마가방이 꿈꾸는 겨자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주곤 집사 / 7교구



성도의 글

사명

이드보라 선교사

구름처럼 흘러온 풀잎 같은 인생
여기까지 오기를 얼마나 시달렸나?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
몇 번의 웃음에 많은 세월을 다 잃고

몸뚱이 주님 앞에 바치니 세상 인맥도 다 끊어지고
달래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나니

감은 눈에 흐른 눈물 열 손가락 흠뻑 적시네
잃은 세월 찾아보니 손마디에 걸쳐간 수많은 사연
저녁노을 지면은 해도 지겠지!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는날
평안히 쉼만한 곳이 거기에는 있겠지



봉사자 간증
안내부

주님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부

매 주일 예배 전에 본당에 모여 기도로 예배안내를 준비하는 안내부. 이전에 성가대, 주방봉사를 해 보았지만 안내부 봉사를 요청 받았을 때는 좀 생소했다. 성도분들의 편안한 자리배치를 도와드리고, 예배 중 요청사항이 있으면 거들어 드리기만 하며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참여해 보니 오시는 성도분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다정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 예배당 출입구를 바라보며 서있어야 하니 성도님들께 얼굴을 보이는게 마냥 쑥스러웠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금방 빈자리도 찾아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익숙하고 일상처럼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삭개오가 나오는 부분(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3~6절)을 읽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인파가 많아 다가갈 수 없었던 삭개오는 갈급함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 숫자에 밝을 뿐 아니라 영특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렇다면 왜소하고 순발력이 떨어진 누군가는 예수님을 뵈고 싶었어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영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파를 정리하여 예수님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뵈 수 있도록 안내한 사람이 없었을까?

오늘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늦은 성도 가운데 갈급함보다 무안함이 더 큰 성도가 있으실 것이다. 그 분들이 예배 중 빈자리를 찾아가는게 힘들어 교회를 안오시거나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내를 하여 모든 성도들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내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김상진 집사 / 2부 안내팀장

봉사자 간증
주차안내부

주차안내원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주일에 정신여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다보니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늘 생각해왔다. 비가 와서 운동장주차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보니 예배시간보다 일찍오는 편이라 주차를 하지 못해서 찢찢매는 일은 별로 없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현장예배가 제한되기도 했고 현장예배에 가능해진 이후에도 감염의 염려로 인해 현장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다. 그만큼 주차공간도 여유가 많았다. 여유공간이 많다보니 간격을 넓혀서 주차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장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확진자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많아졌고 그만큼 차들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주차안내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숫자는 줄었고 차들이 없다보니 그동안 넉넉하게 주차하던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봉사자의 숫자가 줄다보니 봉사자 한 명이 안내해야 하는 공간이 넓어져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조금만 간격을 좁히면 몇 대는 더 주차할 수 있음에도 넉넉하게 주차하던 습관 때문에 그만큼 다만 몇 대의 차들이 더 주차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번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자들은 피택자교육 기간 중 의무적으로 3회 이상 주차안내 봉사를 하게 되었다. 빨리 끝내자는 마음에 바로 세 번 연속으로 차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3부예배 시간에 신청을 하고 주차봉사를 했다. 처음 맡게 된 구역은 학교 교훈이 적혀 있는 곳부터 체육관 뒤편까지였다. 봉사자가 많지 않으니 학교 본관 앞을 지나 체육관 뒤편까지 이러저리 뛰어다닐 수 밖에 없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흐르고 옷이 축축해졌다. 남은 공간이 없는데 차는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고 있는 사역도 많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이거까지 해야 하나 약간의 불평과 함께 살짝 정신이 반쯤 나가는 상태가 되었다.

역시 사람은 차 안에 있을 때와 차 밖에 있을 때의 입장이 너무 달라진다. 차 밖에서 안내를 하다보니 차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주차를 해도 되는 곳과 하면 안되는 곳, 불편하더라도 조금씩만 붙여서 주차하기, 원활한 귀가를 위해 밀리는 시간대 피하기 등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주차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도 많이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니 성도들이 무조건 안내에 따르지 않는다고 상처받기보다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땀을 흘리며 섬기는 그 자리는 목소리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의 자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의 자리, 교제와 나눔을 이끄는 겨자씨 인도자의 자리 못지 않는 사역의 자리였다. 파란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은 주차안내원이 아니었다. 신앙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였다. 앞으로 그 안내에 잘 따라서 교회 오가는 길이 즐겁고 주차조차도 예배요 은혜가 되는 주님의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진원 집사 / 8교구

구제부 소식
가브리엘의 집

보배들의 엄마

저희 할머니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유교적인 관습이 강했던 그 시절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독자이셨던 아버지께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는 모습을 보시고 할머니께서는 욕의 가정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성경을 보시다가 4시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새벽기도를 가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거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쓸 것 다 쓰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쓸 것을 마련해 주시며 전도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고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였지만 저의 역할은 할머니께서 전도가실 때 물품을 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그릇들,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약국을 경영하는 손자에게 부탁하여 의약품이나 현금 등으로 이웃들을 도우며 못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랑받으며 살았으니 어른이 되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서 살던 제가 1968년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후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오히려 졸업하면 바로 그 일을 실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딱한 분들이 누구인가를 찾으며 기도하던 중, 대학교 3학년 추수감사절에 기독교학생회 임원들이 교목님과 함께 장애인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수유리 빨래골에 위치한 지금의 한빛 맹학교 전신인 ‘임마누엘 여맹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여성 시각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바로 이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각에 장애가 있어 서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렇게 쉽게 정이 갈 수 없을 터인데도 저는 운명처럼,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보는 순간 그분들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그들을 돕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1년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1년 이상 지켜보신 시각장애를 가졌던 한신경 교장 선생님께서 시각장애 분야에 전문가의 길을 가볼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권유를 받고는 ‘내가 평생을 걸고 함께할 분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구나’라는 믿음으로 선뜻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게 된 과정은 전국에서 맹학교 교사 6명을 추천받아 미국 보스턴 칼리지 대학원 코스를 4개월로 축약하여 전문교사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행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눈을 가리고 가상시각장애인이 되어 교사가 오리엔테이션 한 구간을 상상도를 그려가며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오후에는 시각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론을 배워 마침내 보행교사가 되었습니다. 보행이란(오리엔테이션 앤 모빌리티) 시각 장애인이 보조기구(흰 지팡이)를 이용해 안전하고 품위 있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세계 어디나 여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시각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중도실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행 및 생활교사로서 일해 왔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둠 속에서 절망하던 중도실명자분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보행과 점자를 배워 맹학교로 진학하게 하거나, 혹은 침술이나 안마를 가르치는 안마 교습소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능력에 비해 너무나 보람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갑자기 닥친 장애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고, 복음 전도의 황금어장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보행교사가 되어 그날로부터 이제까지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중복장애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에 더하여 또 다른 장애를 겸한 중복장애아를 위한 교육적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모님들께서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을 하는 저에게 중복장애아의 조기교육을 간곡하게 부탁해 왔습니다.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성경의 말씀이 전해지는 나라가 신개념의 교육과 의술 더구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가 전무한 상태일 때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선도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아직 우리나라가 중증중복장애아 조기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하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천사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시각장애에 뇌성마비,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겸한 중복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상처받은 가정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6년을 낮 시간에 무상으로 교육하며 많은 장애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달랠 길 없는 부모님들에게 예배와 말씀으로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6년의 기간을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통학할 수 있는 가정은 그래도 선택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중증이라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경제적 위기로 엄마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됨으로 장애아들이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는 24시간 기숙형 교육기관이 필요함을 절감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보금자리가 탄생 되었습니다. 이곳에 맡겨진 아동을 보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집이라 이름 지은 이유는 이곳에 맡겨진 장애 자녀를 통해 그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들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들이 될 테니까요.

26년 전 뜻을 같이한 분들이 보배들을 맡을 때 제때 밥을 먹이고 씻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자 이런 소박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실패하기 전 돌보던 엄마가 경제활동을 위해 밖으로 나가면서 먹거나 씻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우리가 엄마 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었지요. 인간의 기초적인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어서 행복한 장애인으로 살게 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장애인 교육과 복지에 많은 발전이 있게 되어 보배들이 장애 유형

구제부 소식
가브리엘의 집

별로 학교도 다니고 치료실도 다니고 있어서 교사들의 엄마 역할이 더 다양해진 만큼 돌봄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 되었고, 감사한 것은 헌신된 교사들의 사랑에 의해 교육적으로 또한 인성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보배들 모습 속에서 보람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가브리엘의 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매일 아침을 교사들이 예배로 열고 저녁은 보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운영하신다는 믿음으로 국가의 지원이 없이 다만 뜻을 같이하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갈 곳 없는 장애아나 그 외 비장애아라 할지라도 이곳이 아니면 달리 보호받을 곳이 없는 아동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아들은 필리핀 엄마들이 임신사실도 모른 채 결혼 한지 21일 만에 한국말을 모른다고 내쫓겼거나 가정폭력에 의해 도망 나왔는데 필리핀인들의 교회에서 도움을 받다가 출생 후 양육이 힘들어 맡겨졌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아이로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3개월, 7개월 만에 와서 벌써 초등학교 4·5·6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브리엘의집은 앞으로도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보배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김정희 원장 / 가브리엘의 집

가브리엘의 집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입소자 전원이 24시간 생활관에 기숙, 공동생활을 하며 특수교육과 기본생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35길 22-23

전화 : 02)757-1511, 010-3321-8787

대표 : 김정희 원장

설립목적

한 생명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잠재력을 일깨워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기도제목

- 1.가브리엘의 집이 많은 분들에게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보배들을 돕는 손길들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 2.복지타운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 3.함께 동역할 건강하고 신실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매월 마지막 주일 학부모예배



비장애아동 방과후 지도



보배들의 생일파티



개원 25주년 기념감사예배 후

▼ 코로나로 인해 가진 3년 만의 봄소풍 (2022.05.05.국립현충원에서)



교회사용설명서②

교회 공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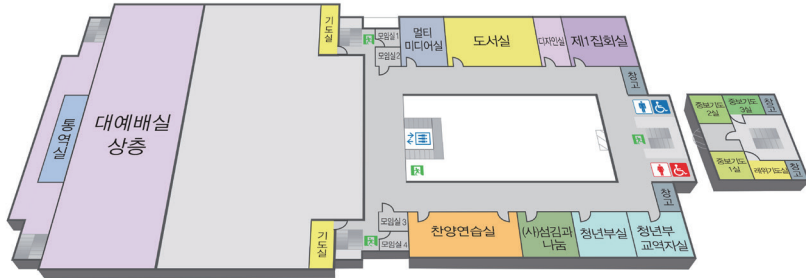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가 사용하는 대강당 김마리아회관은 1998년 주님의교회가 건축하여 정신학원에 기증하고 50년간 임대 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2002년에는 중강당을 증축하였고, 2013년에는 다목적교육관을 건축하여 기증하면서 역시 주님의교회에서 임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김마리아회관 건물에 있는 공간은 아래 층별 평면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층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6F



4F



3F



2F



1F



B1F



교회일정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알립니다

1.유유청청 및 EM 여름행사 안내

청소년수련회 : 7/24(주일) -31(주일)

EM어린이 영어캠프 : 8/6(토) -10(수)

청년수련회 : 8/13(토) -14(주일)

2.2022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신청 및 일정

코스타리카 : 7/29(금) -30(토)

필리핀 : 8/19(금) -20(토)

문의 : 박성갑 집사(010.5274.8590)

3.주방부원 모집

주방봉사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1부 (06:00-09:00)

2부 (09:00-11:00)

3부 (11:00-13:30)

문의 : 김현희 권사(010.2289.9258)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